

서울 파룬궁 수련생, 차이나타운 (中国城) 서 중공 탈당성원 대행진 개최



[밍후이왕] 지난 8월 9일, 한국 서울과 수도권 파룬궁 수련생 500여 명은 중국인 최대 밀집 거주지역인 대림역 부근 차이나타운 (中国城) 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중공공산당 3대 조직 탈퇴 3억 6천만 명 돌파’ 성원 대행진을 펼쳤다.

이날 서울 남구로와 대림 일대에 살고 있는 많은 중국인이 빗속에서도 성대하게 펼쳐지는 파룬궁 수련생들의 대행진 장면을 지켜보면서, 3억 6천만 중국인의 삼퇴 (三退 - 중공공산당 3대 조직인 공산당, 공청단, 소년선봉대에서 탈퇴) 소식과 함께 자국에서는 알 수 없었던 파룬궁의 진실한 정황을 알고 놀라워했다.

최근 한국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장마가 50일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전국 곳곳에 나타나 재난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태풍예보까지 있어 행사 당일도 종일 큰비가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발표된 상태였다.

아침부터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수련생들은 집결 시간인 10시까지 대행진출발장소인 구로 어린이공원에 속속 도착했다. 행사 준비를 시작하자 내리던 빗줄기가 한결 가늘어졌다. 수련생들은 ‘천멸중공 (天滅中共), ‘중공 (中共) 은 중국이 아니다’, ‘중공을 탈퇴하여 온역 (瘟疫) 을 멀리하자’,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 (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 등 글씨가 적힌 피켓 (뒷면에 계속)



▲ 8월 9일, 한국 서울 파룬궁 수련생들이 펼친 3억 6천만 중국인의 삼퇴를 성원하는 대행진 현장. 호우 속 숙연한 대행진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감명받은 모습을 보였다.

(앞면의 계속) 과 현수막을 들고 정연히 줄을 맞춰 대행진 출발을 대기했다.

무한 폐렴 예방을 위하여 관내 구청 공무원 7명이 나와 지켜보는 가운데, 수련생들은 열감지기로 참가 수련생들의 체온을 체크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하면서 정부방침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행사를 주관한 (사)한국파룬파불학회 오세열 사무총장은 이번 행사의 취지에 대해 “한국에는 현재 10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들어와 있는데, 중국에 있을 때 공산당의 거짓선전에 속아서 독해됐기 때문에 파룬궁과 중국공산당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서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공산당원과 가족들의 입국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온 이래 공산당 3대 조직의 탈퇴인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은 이런 소식을 정확히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행사를 통하여 중국인들에게 파룬궁은 좋은 것임을 알리고, 왜 중국공산당 3대 조직을 탈퇴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 주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중공을 멀리해야 무한 폐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전 세계 (중국인들의 중공 탈퇴) 탈당센터 한국지부장인 고성녀 씨는 “많은 중국인이 처음에는 파룬궁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중공 매체의 거짓선전을 곧이듣다가 해외에 나와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속임수를 당했음을 알게 된다”며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피해자다. 때문에 이들이 진상을 알게 되면 중공 조직을 탈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씨는 이어 중국공산당은 중국을 대표할 수 없다면서, “중국은 세계인들이

흠모하는 5천년 문명의 찬란하고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맑스와 레닌은 서방에서 온 유령이나 마찬가지로, 중국의 전통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국인들에게 강제로 주입된 사상이다. 중국인들이 이런 진상을 알고 공산당의 사악한 본질을 알고 나면 모두 탈퇴를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 “현재 중공은 자국민에게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전염병 전파 사실을 속이고 병독을 전 세계에 퍼뜨려 수십억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이 중공의 본질을 똑바로 인식하고, 중공을 멀리하여 무한 폐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호우 속 숙연한 대행진 장면에 관계자들도 감명받아

당일 오전 11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전원 파룬궁 수련생들로 구성된 마칭밴드 ‘천국악단’을 선두로 대행진이 시작됐다. 참가한 수련생들이 비를 맞으면서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열을 맞추어 출발을 준비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고 현장에 있던 중국인들은 물론 경찰, 구청 관계자들도 감명을 받은 모습을 보였다.

대행진 행렬이 도로에 나가자 지나가던 행인들과 차량들이 일제히 시선을 집중하였다. 우산을 쓰고 지나가던 행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멍한 채로 행렬을 지켜보았다. 수련생들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행사관계 자료를 배포하며 행사에 관한 설명을 해주었는데, 노란 옷을 입고 중국어로 된 현수막과 피켓을 든 모습을 보고 이 단체가 모두 중국인들인 줄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처음에는 1개 차로만을 사용하다가 경찰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로의 전체를 개방 해주어

행이 매우 순조롭게 되었다. 현장을 책임진 한 관계자는, 일반인들은 이런 큰비가 오면 대부분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데, 파룬궁 수련생들이 누구도 동요하는 기색이없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 관계자는 대행진이 끝나자, 다음에 날씨가 좋을 때 꼭 다시 하라고 덕담을 건넸다.

중대행진 행렬이 중국성 중심부에 들어서자 대부분 중국인들은 눈이 휘둥그레진 상태로 행렬을 지켜보는가 하면 계속하여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기도 했다. 중공의 거짓선전에 속아 온 많은 중국인은 대행진 행렬을 보고 매우 놀라는 표정이었다. 중국인에게는 도시에서 이런 대규모 파룬궁 행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한 한국 시민은 처음에는 ‘삼퇴’의 의미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수련생에게서 파룬궁 관련 진상을 들은 후 금방 이해가 됐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우리도 공산당을 반대한다”라고 성원했다.

화인 수련생 몇 명은 현장에서 중국인들과 이야기 나누며 그들에게 파룬궁 진상과 공산당의 사악한 본질을 알렸다. 또한, 중국인들이 과거 중국공산당 조직에 가입하면서 “일생을 공산당에 바치겠다”라고 한 지독한 맹세를 지우고 공산당을 탈퇴하여 온역과 겁난(劫難)에서 벗어날 것을 권했다. 행렬을 서서 지켜보고 있던 중국인들이 대부분 삼퇴에 응했는데, 비율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수련생들은 64명의 중국인으로부터 삼퇴 성명을 받았다.

대행진 마지막 팀이 도착해 모든 행사가 끝나자 빗방울이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다. ◇

조선족 청년 권충호가 박해로 사망한 경과를 가족이 하소연하다

[명후이왕] 흑룡강 목단강시 서안구 해남조선족향 파룬궁수련생 권충호(權忠浩)는 2003년 9월 28일에 향 정부 사람에게 흑독한 구타를 당해 사망했는데, ‘목매어 자살했다.’라는 거짓말과 함께 강제 화장됐다. 당시 가족은 권충호의 온몸이 피와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권충호의 아버지 권상목(權相睦) 노인은 아들이 박해로 사망한 경과를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나는 권상목이라고 부르며 83세다. 아내 김상숙(金相淑)은 78세인데, 우리는 모두 조선족이고 흑룡강성 목단강시 서안구에서 거주하는 농민이다.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기 전에 나는 온몸에 병을 앓았는데, 대법을 배우고 연공을 거쳐 건강해졌고 가정도 화목해졌다.

우리 집 네 식구는 모두 파룬궁을 연마했다. 딸은 아내의 전남편의 딸인데 현지에서 결혼했고 리숙금(李淑金)이라고 부르며 51세다. 아들 권충호는 사망 당시 28세였다.

오늘 나는 아들 권충호가 박해를 당해 사망한 경과를 써내겠다. 희망하건대 억울한 누명을 깨끗이 벗을 수 있고 정의를 분명히 밝힐 수 있기 바란다.

1999년 7·20 이후, 전국적으로 파룬궁 박해가 시작됐다. 우리 현지의 경찰, 촌 간부는 진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촌민을 거느리고 우리 집으로 와서 소란을 피웠다. 내 딸에게 수련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게 했고, 아들을 세뇌반으로 납치해 보름 동안 불법으로 감금한 후 비인간적인 시달림을 가했다. 현지 간부는 있는 방법을 다해 강제로 아들에 대해 전향을 강요했고, ‘수련하지 않는 보증서’를 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



다.

2003년 9월 27일, 우리 세 식구는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다. 온종일 논벼를 베는 일을 해서 모두 매우 지쳤다. 저녁밥을 먹을 때 아들은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어디에서 걸려온 전화인지 묻자 향에서 그에게 내일 아침 한번 왔다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마음에 두지 않고 너무 지쳐 잠을 잤다.

이튿날 아침 4시가 넘어 내가 깨어나 보니 아들이 보이지 않았다. 날이 거의 밝아올 때, 대대 서기 최호림(崔浩林)이 전화를 걸어 “당신의 아들은 목을 매 죽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내가 급히 나가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여전히 대대 서기 최호림이 가리킨 방향인데, 나는 산에서 아들을 찾아냈다. 집에서 500m 떨어진 나무 위에 매달려 있었다.

아들을 내려놓은 후, 나는 끈이 우리 집의 것이 아닌 것을 발견했다. 목에 죽은 사람은 죽은 후 모두 혀를 내미는데 아들은 혀를 내밀지도 않았다. 게다가 그의 전신에 피와 상처가 있었다. 나는 “당신들이 사람을 구타해 매달아 놓은 것이군.”라고 말했다. 나는 대대 서기 최호림에게 “당신은 내 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소?”라고 묻자, 그는 약초 캐는 사람이 알려줬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은 대대 회계사 리학철(李學哲), 향

치안 주임 장일남(張日南), 김철(金哲), 대대장 리승렬(李勝烈), 그리고 향 파출소의 10여 명이 있었는데, 촌민은 없었다.

나는 연속 “당신들이 사람을 구타해 죽여 매달아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치안 주임 장일남 등은 나를 잡아당겨 집으로 돌려보냈다.

아들은 두아(竇娥: 중국에서 억울하게 죽은 대표적인 인물의 상징 - 역주)보다 더 애매하고 억울하게 죽었다. 해림시 공안국 위상뉘(玉尙多)는 또 나한테서 500원의 화장 비용을 갈취했다. 아내와 나는 극히 비통해했다. 해림시 공안국에서는 강제로 시신을 끌어가 화장했는데, 우리 가족의 어떠한 동의나 서명을 거치지 않았다. 나이가 젊고 기운 넘치는 아들이 이렇게 애매하게 사라졌다.

현지 공안은 여전히 단념하지 않고 매일 사람을 파견해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가 누구와 접촉하는지 감시하며, 우리가 누구와 상의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딸이 우리를 보러 왔는데, 온 집안에 외부 사람이 꼭 차 있는 것을 보고 감히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6개월 넘게 지속했는데, 우리 집에 외부인이 오지 않고 또 격분해도 감히 말하지 못함을 보고서야, 그들도 마음 놓고 오지 않았다.

20여 년이 지났다. 강택민의 박해 정책으로 우리는 억울함이 있어도 호소할 곳이 없고, 이유가 있어도 말할 곳이 없다. 인명을 초개처럼 여긴 모든 사람이 법적제재에서 벗어나 있다. ◇

[밍 후 이 왕] 2019 년 7 월 어느 날 , 79 세 언니 (파룬궁수련생) 가 갑자기 숨이 막혀 얼굴이 검붉어지더니 인사불성이 되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 이때 호흡기를 달고 있었는데 심장이 이미 멎고 뇌사 상태에 빠져 의사는 세 번이나 심장을 전기 충격했다 . 의사들은 오후부터 밤중까지 네 차례 위독 통지를 내려 가족에게 치료할 의미가 없으니 호흡기를 갖고 120 구급차를 타고 빨리 귀가하라고 권했다 . 온 가족이 서로 붙들고 울었다 .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같이 간 의사는 언니의 머리를 만지며 운전사에게 서둘러 달라고 몇 번이나 “좀 빨리요”라고 재촉했다 . 나와 조카 (수련생임) 는 마음속으로 강대한 정념으로 언니에게 “구세력이 배치한 길로 갈 수 없어요 . 지금 가면 안 돼요 . 사명을 다 완성하지 못했어요 . 아직도 아주 많은 중생이 당신이 가서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 꼭 사부님을 따라 가세요 ! ‘제자가 정념이 족하면 사부는 회천력이 있노라’ 하셨어요 .” (주 : 리 홍 쯔 (李洪志) 사부님 시 : ‘홍음 2- 사도은 ’) 우리는 이렇게 한시도 쉬지 않고 언니에게 말했다 . 한 시간 정도 지나 언니는 우리말을 들은 것 같이 고개를 끄덕였고 ,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다리를 움직였다 .

다시 20 여 분이 지나서 언니의 집에 도착하자 마당에는 언니와 마지막으로 인사하려고 온 사람들이 가득 서 있었다 .

방에 들어간 후 , 언니는 이미 깨어났으며 가족에게 호흡기를 뽑아 달라고 했다 . 조카가 형부에게 말했다 . “아버지 , 어머니가 호흡기를 너무 힘들어 하세요 . 뽑아드릴까요 ?” 형부

언니가 기사회생 하다

글 / 산동 파룬궁수련생

가 언니에게 말했다 . “여보 , 이것은 당신이 원해서이고 나의 뜻이 아니요 . 나는 한평생 당신의 말대로 했으니 뽑겠소 . 5 분도 안 걸려요 .” 형부는 말하면서 의사에게 호흡기를 뽑아달라고 했다 .

그때 언니는 세 번 크게 소리 치더니 순식간에 많이 좋아졌다 . 언니는 “내가 어찌 된 일이지 ? 여기는 어디죠 ?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라고 물었다 . 우리는 언니에게 “언니가 아파서 지금 고향집으로 왔으며 친지들이 언니를 보러 왔어요”라고 알려줬다 . 언니는 듣고 나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감사하다고 인사했는데 호칭도 다 틀리지 않았다 .

마을 사람들은 언니가 살아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 언니 집에 들러 직접 보고서야 믿었다 . 이웃들은 모두 “대법 (大法) 은 확실히 좋다 . 죽은 사람도 살아났으니 신기하다”고 말했다 .

며칠 후 조카가 병원에 의료비를 결산하러 갔는데 원장 (친구임) 은 어머니의 장례는 잘 치

렀냐고 물었다 . 조카가 “어머니가 살아나셨어 .”라고 말하자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 “정말 대단하시네 . 심장이 23 cm나 막혀 삽입한 파이프가 23 cm나 되고 또 23 cm나 막혔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 원장은 언니의 동영상을 보고서야 확실히 언니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감개무량해하며 “당신 어머니는 전설적인 늙지 않는 소나무네요 . 우리 병원이 개원한 후 이런 병에 걸려 살아난 사람은 처음입니다 !”라고 했다 . 사정을 알게 된 의사도 신기하다고 했다 .

이번에 언니가 중병에 걸렸다가 기사회생해 많은 사람이 대법이 병을 치유하고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믿게 됐으며 , 대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게 됐다 . 집안사람들은 더욱 대법을 믿게 됐고 , 며느리도 대법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 여러 해 동안 배우지 않던 딸도 다시 법을 배우게 됐는데 , 그들 온 가족은 생명을 구해주신 사부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렸다 . ◇

